



## 아시아-구주향 컨테이너화물 지난해 12% 증가

### 아시아발 지중해 컨물동량은 20% 가량 늘어

지난 2005년 아시아지역에서 구주지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화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일본해사신문이 최근 자체집계한 자료에 따르면, 지난해 아시아지역에서 북유럽 및 지중해지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화물은 585만TEU로 전년 대비 12% 증가했다.

지역별로는 높은 성장이 계속되는 지중해가 20% 증가한 150만TEU를 기록했고, 북유럽항은 10% 증가한 430만TEU를 기록하는 등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였다.

이처럼 지난해 물동량이 증가한 것은 아시아 통화에 대한 유로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EU(유럽연합)에 의한 시장규모의 거대화가 진전되면서 일반소비재를 중심으로 아시아로부터 수

입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, 향후에도 이 같은 확대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지난해 아시아의 북유럽/지중해 수출물동량을 선적국가별로 분류하면, 중국이 전년 대비 24% 증가한 320만TEU로 전체물동량의 54%를 차지했으며, 홍콩의 물량을 합하면 점유율이 63%에 달한다.

이어 일본에서 선적된 화물은 6% 증가한 54만TEU로 전체의 9%를 차지했으며, 한국, 대만, 타이, 베트남 등의 신장도 한자리수에 머물러, 컨테이너화물의 중국 집중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.

이들 화물의 도착지역을 보면, 북유럽에서는 러시아, 발트해, 체코나 헝가리, 폴란드의 동구권, 지중해에서는 이집트, 흑해 등 신흥국가군이 급성장을 보였다.

## 아시아역내 항로 컨테이너물동량 7% 증가

### 지난해 물량증가 불구 선복과잉으로 고전

지난해 아시아역내 컨테이너물동량이 7%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아시아역내 항로에 취항중인 주요선사가 정리한 2005년도 역내 컨테이너 물동량은 940만TEU로 전년 대비 7% 증가했다. 이 가운데 건화물은 900만TEU로 전년 대비 7% 증가했으며, 냉동화물은 40만TEU로 5% 가량 증가했다.

특히 지난해 아시아역내 항로의 물동량은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2004년도 상황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. 이는 물동량 증가율이 선복

량 증가율을 크게 하회한데다 고유가로 인해 연료유가격이 급등했고 각종 항비 등이 상승하면서 이 항로 취항선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.

아시아역내 항로는 작년말부터 신규로 진출한 선사들이 많아 선복과잉현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금년 1월에 당행키로 했던 운임인상은 불발로 끝났다. 하지만, 최근들어 이 항로의 물동량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오는 4월에 실시하는 운임인상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